

완주 전통시장 활성화한다

군, 봉동 생강골시장 문화행사·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등 추진

완주군이 전통시장 문화행사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계기를 마련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봉동 전통시장에서 봉동시장 상인회(회장 송점순) 주최로 '봉동 생강골시장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봉동시장을 홍보하고 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전통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봉동 생강골 시장은 전통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찾아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경쟁력 갖추기에 나섰다.

올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시장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흥기 부군수는 "봉동시장이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전통시장이 되길 바라며, 행정에서도 봉동시

장이 지역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인들과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댄스공연, 초대가수 축하공연 및 장기자랑 그리고 방문객과 함께 하는 시장 노래자랑 등의 다채롭게 진행되었으며, 김흥기 완주 부군수, 정성모 완주군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및 봉동 상인회와 방문객 등 300여명이 참석해 행사의 뜻을 함께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쌀값폭락에 따른 생계대책 마련하라”

장수군의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장수군의의회(의장 유기홍)는 20일 제 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생계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중문의원의 5명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계획을 조기 발표하고, 공공비축미 매입량과 쌀 생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 확대, 수입쌀이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둔갑되지 않게 부정유통 방지 대책과 쌀값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농협 산물 수매 품종이나, 비축미 품종을 동일한 품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상조건이 좋아 쌀농사는 풍년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해마다 계속 줄고 있고, 재고량은 늘어 쌀값이 폭락하고 있으며,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에



의하면 금년도 쌀 생산량은 420만 2천톤이고, 8월에 발표한 쌀 재고량은 175만 톤이며, 쌀 수요량은 395만 톤 정도로 전망되어 쌀 소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쌀 저장 비용만으로도 연간 수천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쿼터제와 밥쌀용 쌀 30% 의무도입 조항이 폐기되어 더 많은 밥쌀용 쌀이 수입됨에 따라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며, 급기야 올해는

1995년 수준인 137,152원까지 떨어져, 쌀 목표 가격 188,000원의 72%에 불과하고, 작년 가격 158,148원의 86%의 수준이다.

이번 결의안은 농업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의 목소리를 담아 채택하였으며, 이날 장수군의의회 의원들은 지난 9월 25일 운명을 달리하고(故) 백강기 농민의 장수농민회 분향소를 찾아 합동 분향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마이산도립공원, 관광성수기 준비 만전

등산로 시설물 안전점검 등

마이산도립공원은 오는 22일부터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안전한 산행을 위해 가을관광성수기 특별관리 기간을 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탐방로 및 등산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주변 환경정비를 통하여 낙석, 미끄럼 등의 피해를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 및 행락객의 탐방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행락객 맞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상구급함을 정비하여 산행시 상처를 입으면 누구나 약품을 이용해 응급처치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마이산의 생태 환경을 복원하고, 마이산의 참모습을 가까이에서 조망하면서 건강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30일 마이산북부주차장이 폐쇄되었다.

이에 따라 마이산북부를 방문하는 탐방객과 군민들은 마이산관광정보센



터 앞 신설된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에 마이산을 탐방하고 상가를 이용하도록 주차장 이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탐방객에게 단풍철 행락 분위기에 휩쓸려 셋길출입, 흡연, 취사, 무단주차 등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와 함께 합미산성, 덕천교 등에서 광대봉과 고금당으로 이어지는 일부 등산로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별 통제구간으

로 입산이 금지됨에 따라 단풍철 행락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마이산에서 탐방객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이산은 많은 탐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원 내 시설 및 환경 정비 등의 안전과 청결 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오늘 진안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자 시상

박재철씨 작품 금상 받아

진안군은 20일 진안의 아름다운 관광사진을 활용해 전국에 진안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한 '진안관광사진 전국공모전'에서 당선된 수상자들을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마이산, 구봉산, 백운동계곡, 운암안반입암 등 주요명소와 원연장 꽃잔디축제, 동향 수박축제 등 각종 축제, 지역특산물인 인삼밭, 홍삼 등을 테마로한 자유 작품을 공모분야로 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접수 받은 결과 총 435점이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3일 군청강당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접수 작품에 대한 심사를 실시,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70점으로 총 81점을 선정 발표했다.

시상식은 21일 전북예술회관 2층 차오름1실에서 수상자 11명을 초청해 시상식 및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은 10월 27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 전시되며, 영예의 금상은 마이산과 인삼밭을 주제로 한 박재철씨의 작품이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은 "이번 공모전 수상자들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전국에 진안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알려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진공모전에 입상한 사진들은 오는 11월말부터 한달 간 진안역사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며, 향후 진안 관광홍보물 제작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천마도 맛보고 축제도 즐기고’

무주 천마축제 개최... 22~23일 안성 생활체육공원서

제10회 무주 천마축제가 22일~23일까지 이틀에 걸쳐 무주군 안성면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무주 천마축제는 지역의 특산물인 천마를 홍보 판매하는 계기를 만들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무주 천마축제 제2위원회가 주최하고 무주하늘천마명농조합법인에서 주관한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축제 첫 날인 22일에는 1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웃음치료와 전국 밴드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 23일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와 지역동아리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지며 천마품평회 시상식과 함께 노래자랑과 풍등 날리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천마재배포장 시연과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를 비롯한 천마품평회와 천마 캐기 체험, 천마와 함께 사진 찍기, 천마시식행사 등이 마련된다.

무주 천마축제 제2위원회 강수복 회장은 "무주의 자랑, 안성면의 자랑 천마 수확 철을 맞아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직거래장

터를 마련했다"며 "오셔서 무주 천마의 맛과 효능을 확인하고 무주천마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재미를 만끽해보시라"고 전했다.

무주군의 천마재배 면적은 총 50.2ha(전국의 54.7%, 전북 생산량의 80.1%)로 연간 319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100%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재배 시 농약이나 화학비료 전혀 사용안함) 안전한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군은 천마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연구를 통한 우량종마 생산,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종근배양센터를 활성화시켜 농가보급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무주천마사업단과 함께 2,300㎡ 규모의 신기술 실증시험포 조성, 자마 형질복원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말레이시아 IUM 대학(말레이시아국제예술대학) INHART 연구소와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천마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천마농가 수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여성인재 간담회 개최

무주군 여성인재 간담회가 20일 무주읍 전통공예문화촌 다목적영상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보유한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관련 기관 대표, 사회단체, 마을이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주군 여성리더의 역할과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강미경 담당으로부터 여성인재풀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자씨(무주읍 신교이장)는 "이 자리를 통해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다"며 "무주군 여성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과 이웃을 위해 제 가진 능력과 열정을 쏟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인재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발굴, 육성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과장급 이상 종사자들과 교수 등 전문가, 문화, 예술, 체육 인 등 공공·민간 분야에서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여성을 말한다.

군은 여성 리더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재풀을 구상 중으로 정책개발 및 관련 분야 조언 등 각자 현실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 나갈 방침이다.

황정수 군수는 "이 자리가 무주군 여성리더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을 이끄는 주역, 대한민국 여성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보건소, 국가암 무료검진 대상자 홍보 나서

진안군보건소는 무료 국가암 검진 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등 1만64명에 대해 조기검진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 암검진 항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2년/1회), 대장암(1년/만 50세 이상), 간암(만성간질환 환자 연 2회)이며, 검진기관은 진안군의료원, 마이외과·정형외과, 우리가정의학과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자궁경부암 대상이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 되었다.

군 보건소는 2016년 9월말 기준 수검률은 암종별 대상자 2만135건 중 4,911건으로 24.39%로 실적이 아주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국가암 수검률 향상을 위해 각종 축제와 읍·면민이날 행사 등 약 25회 홍보 캠페인을 펼쳤으며, 미수검자를 대상

으로 SNS 조기검진 문자발송 및 전 복지지역안내센터 및 관내 검진기관과 긴밀한 연계로 국가암검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암 수검률 향상을 위해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1:1 전화수검 독려와 LED 전광판 홍보 및 군내버스 광고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국가암 조기 검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의료비 절감 및 가족과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별블로그

장수군, 경북 청도휴게소에서 가을여행주간 홍보캠페인 전개

장수군은 20일 경북 청도휴게소에서 '2016 가을 여행주간(24일~11월7일)'을 맞아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 '가을여행주간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20일 경상북도 청도 휴게소(상·하행)에서 펼쳐진 이번 캠페인에는 영호남 교류 확대 및 고속도로 주변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22개시·군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관광지도, 관광 홍보물품 배부 등 다양한 캠페인 행사를 실시해 가을철 관광객에게 지역을 소개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속도로 인접 타 시군과의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홍보마케팅에 참여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관광이미지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완주군 '문화가 있는 날' 공연 26일 우석대 문화관 아트홀서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오는 26일에 우석대 문화관 아트홀에서 개최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는 행사로서 주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정된 날로 그동안 (재)완주문화재단은 소양면, 경천면, 고산면, 삼례읍에서 문화행사를 실시했다.

오는 26일에는 우석대학교 협조를 통해 유학생 및 대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에 뮤지컬 공연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때, 목요일, 다도 등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문화예술교육행사를 아트홀 공연장에서 진행하며, 공연은 1부는 창포마을 어르신연주단, 주민 배우 음악극 '청춘의 꿈' 쇼케이스가 진행된다.

2부 공연은 '내 마음이 들리나오' 창작 뮤지컬을 통해 성춘향과 이도령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경찰서 - 굿네이버스 아동학대 예방사업 '맞선'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는 지난 19일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똑똑(TOC, Talk Ok Check)사업을 전북도에서 최초로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똑똑(TOC TOC) 프로그램은 굿네이버스가 의뢰하여 서울대 교수진에게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서, 저학년 학생들이 성폭력이나 유괴 등 범죄로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과 게임을 통해 학습하도록 고안된 교부제이다.

무주서는 아동학대 담당자와 학교폭력 담당자의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교육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함으로써 아동 범죄대처 능력이 매우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서 승용차 깔린 70대 숨져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 119구조·구급대는 20일 오전 6시경 천천면 삼장마을 앞 도로상에서 승용차가 깔린 농민 이모(75)씨를 구조해 병원에 이송했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천천면사무소지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아반떼)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추성엽 119구조대장은 "수확철인 10월에 농기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몰과 일출 직전에는 도로가 어두워 농기계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